

#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친화적 행동에 관한 연구

## The Life Style of Urban Employed Wives and Pro-Environmental Behavior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부 가족자원경영 전공

강 사 변 순 희

교 수 계 선 자

Dept. of Hom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Lecture : Soon-Hee Byun

Prof. : Sun-Ja Kye

### ◁ 목 차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문제

IV. 연구방법

V. 연구결과 및 분석

V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firstly to examine the level of pro-environmental behavior of urban employed wives depending on their life style type and secondly to identify effective ways to promote their pro-environmental behavior.

A structured questionnair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700 urban employed wives who lived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566 of the responses were valid for analysis. For statistical analysis, this research reviewed the frequencies,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SD), Pearson's correlations, Cronbach's  $\alpha$ ,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ANOVA,  $\chi^2$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PC WIN.

The findings of analysi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Among life style types of employed wives, the order of ecological value was orientation type (37.3%), followed by economical value orientation type (25.8%), uninterested type (18.7%), and convenience-centric value orientation type (18.2%). Pro-environmental behavior scored relatively highly at 3.45 in average.
2. I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ife style and background variations, every variation except

environmental knowledge was meaningful.

3.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environment behavior and background variations, every variation was meaningful except housing types, having helper or not, and environmental knowledge.

4. The recognition level of environmental pollution was important among the variations affecting pro-environmental behavior.

5. There was a difference in pro-environmental behaviors by the following life style types: ecological value orientation, economical value orientation, convenience-centric orientation and uninterested.

6. For the relative contribution comparison of background variations (socio-economic variation and environmental variation) and life style variations to the pro-environmental behavior of urban employed wives, this research additionally applied each independent variable group. As a result, the explanation level drastically increased in the third step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life style.

**주제어(Key Words):** 생활양식(Life-style), 환경친화적 행동(Pro-environmental behavior), 환경지식(Environmental knowledge)

## I.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물질적 풍요로움의 실현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인 우리의 환경을 훼손시키는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시켰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소비가 가속화됨으로써 인간생태계의 자정정화기능을 마비시켜 지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원고갈, 환경오염과 같은 환경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없이 경제성장을 급격히 추진한 결과 폐기물 문제가 대두되었다. 즉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생활은 풍요롭고 편리하게 되었으나 그 부산물로서 자원을 고갈시키고, 영구히 자연의 순환과정으로 환원되지 않는 물질을 수없이 생산하기에 이르러 자연의 생태적 회복능력을 상회하는 대량의 폐기물을 배출, 누적시켜 왔다. 그 결과가 최근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환경문제는 경제성장이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몇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직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생존을 위협하는 파괴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비용'을 발생하게 하고, '사회비용'의 발생은 사람들로 하여금 양적 경제성장이 질적 경제성장과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지금까지 양적인 경제성장만을 추구해

오던 사회로 하여금 '질적인 성장'과 '질적인 소비'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하였고(유두련, 1991; 박운아, 1997), 더 이상의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현재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정부의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의 의식변화를 야기시켰다.

그러므로 환경문제는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당면하는 반대급부의 부산물로서 이러한 환경문제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인 가정내에서 소비자의 그릇된 생활양식과 가치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결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생활양식과 가치관을 생태적인 생활양식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쾌적한 환경을 창조하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온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생활의 풍요로움을 희생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즉 소비사회의 물질주의의 한계와 환경오염의 문제에 직면하면서부터 책임있는 소비자, 사회적 식견이 있는 소비자, 앞서 생각하고 사회적 자각에 비추어 자신의 열망을 조화시키는 소비자, 도덕적 행동을 하고 공동복지를 위해 개인의 쾌락을 희생시킬 준비를 할 줄 아는 소비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Solheim과 Hill(1994)의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1960년대는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환경에 유해한 영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환경문제 인식에 관한 논

문과 인구증가와 영양실조, 기아에 관한 논문이 소수 쓰여졌으나, 에너지 쇼크와 경기침체로 특징되는 70년대는 환경관련 논문이 가장 활발하게 쓰여졌으며, 80년대에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의 관련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등(박운아, 1997) 소비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복지를 위해 책임있는 소비자행동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은 환경부(2002)의 21세기 환경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즉 환경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비자들이 처분행동을 효율적으로 잘 수행하는 것이며, 소비자들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으로 자원을 절약하면서 환경과피를 예방하여 후손에게 깨끗한 자연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는 등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환경비전 21은 환경을 훼손하는 자와 환경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고, 국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돌려줌으로써 환경친화적 행동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은 미래의 생활인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장소이며, 개개인의 생애표현의 장소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정내의 폐기물을 처분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가정내 관리행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주부 소비자들이므로 주부가 먼저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리오선언(1992)'에서도 "여성은 환경관리와 개발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함으로서 환경문제 해결에 가정주부들의 참여를 추구하고 있다.

또한 여성은 후기 산업화로 인하여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었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경제활동 참가율(1985년 41.0%, 2000년 48.7%)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2).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가정에서 실제 관리자임과 동시에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인으로서 취업주부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소비자가 처분행동을 잘 수행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논문들(변순희, 1994; Allen, 2001; Schwartz, 2001; Birch, 2000)에서 처분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활용행동(계전자 변순희, 1996; 박운아, 1997; Spence, 2000; Elnick, 2000), 자원절약행동(노채영 등, 1991; 이무영, 1994; Roper 등, 1989; Schahn 등 1990), 폐기물 감소와 분리수거 행동(최남숙, 1994; 변순희, 1994; 박운아 이기춘, 1995; Schwartz, 2001)으로 나타나 이들 행동이 환경보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환경부(2002)의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아직도 주민들이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배출요령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주민들에게 숙지시키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부(2002, 2)에서는 주민들의 환경보전행동을 촉진하고자 '장바구니 사용고객 가격할인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바구니 사용에 대하여는 83.7%가 인식한 반면 실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은 51.3%로 나타났고, 일회용 비닐봉투값을 환불받지 않는 경우도 54.9%로써 그대로 쓰레기가 되므로 의식에 비해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장바구니를 사용할 경우 가격할인제 및 비닐봉투값 인상을 검토하여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함으로써 환경보전행동에 적극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활쓰레기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여 쓰레기 매립지 주변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로 불리워지던 것을 환경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되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실현(중앙일보, 2002년 4월 9일자)하고, 생활폐기물의 34.9%가 자원으로 활용(환경부, 1998)되던 것이 2002년에는 40.0% 증가하는 등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만족을 주어 주민들이 실천하고 있는 쓰레기 처분행동을 지속적이고 필수적인 행동으로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는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하며, 언제나 사회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 하는 사회적 기관이므로 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이 결

국 기업에 이익이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되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상품의 구매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은 환경상품 개발시 첫째, 보다 소량의 원재료와 에너지가 소요되고, 고갈 가능성이 없는 원재료에 의한 생산 둘째,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보다 적은 에너지 소모 셋째, 생산·소비 및 사용후 처리과정에서 공해물질의 배출억제 넷째, 제품사용 후 재사용 내지 재순환 가능성 다섯째, 긴 제품수명 여섯째, 수선 및 유지의 용이성 일곱째, 낮은 비용에 의한 폐기물 처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이규희, 1995). 또한 이러한 환경상품을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통경로를 확보하고, 환경상품의 가격을 탄력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가계에서 실제 가정관리자인 취업주부가 여러 가지 제약들로 인해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및 처분행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보고 바람직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제시하고 취업주부의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라이프스타일의 개념이 소비자행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최초로 강조한 사람은 Lazarsfeld였으며, 그 후 1963년 Lazer도 소비자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외에 의미있는 특성을 나타내주는 라이프스타일 개념이 소비자의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라이프스타일은 총체적이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 사회전체나 그 일부에서 비롯되는 차별적이고 특징있는 생활양식이며, 동시에 라이프스타일을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명하

면 라이프스타일은 어떤 문화나 집단의 생활방법을 설명하는 유일한 내용이나 특질에 관련되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과 구별된다.

변순희(1994), 계선자·변순희(1996)는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40문항을 구성변인에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주어 평균, 표준편차, 빈도를 고려하여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라이프스타일이 변화 추구형, 적극활동형, 전통주의형, 합리주의형, 현실안정형의 5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연령, 학력, 주거형태, 소득, 반사회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영아(1996)는 요인분석 결과 도출된 24문항을 근거로 군집분석을 하여 라이프스타일을 적극활동형 19.9%, 편리추구형 7.9%, 절제사려형 67.7%, 소극적 침체형 4.5%의 4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인구통계학적 특성과의 관계에서 주부의 연령, 소득, 주거형태, 자녀수, 결혼지속년수, 취업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남편의 직업, 주거형태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ssael(1983)은 라이프스타일을 전통형, 자기중심형, 보수형, 실질형으로 분류하였고, Mitchell(1983)은 라이프스타일을 9가지 유형 즉 생존자형, 생계유지형, 소속지향형, 경쟁지향형, 성취지향형, I-AM-ME형, 경험자형, 사회사업형, 종합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생태지향형, 경제지향형, 편의지향형, 무관심형의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겠다.

### 2. 환경친화적 행동 선행연구

환경친화적 행동은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가지고 있지 않은 행동 패턴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것(Antil & Bennett, 1984)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을 측정하는데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용어들을 사용하여 연구되었는데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황인창,

1990; 박운아·이기춘, 1995), 환경보전적 소비자행동(장혜경, 1992; 노영화·강성진, 1992; 변순희, 1994; 안향아, 1994; 최남숙, 1994), 환경보호적 소비(박명희, 1997), 환경문제를 의식하는 소비자(서정희, 1986), 환경의식적 소비자(Constantini & Hanf, 1972; Tognacci, Weigel & Vernon, 1972; Kinnear, Taylor & Ahmed, 1974; Buttel & Flinn, 1978; Van Liere & Dunlap, 1980; Samdahl & Robertson, 1989; Stern, Dietz & Kalof, 1993), 환경친화적 행동(박운아, 1997; 민현선, 1998; Oskamp 등, 1991; Garman, 1995), 환경에 책임있는 소비자(Dolish & Wilson, 1980), 환경에 조화되는 행동(Young, 1986), 사회적으로 의식있는 소비자(Anderson & Cunningham, 1972; Webster, 1975),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소비자(Antil, 1984), 생태학적으로 관심있는 소비자(Henion, 1972)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연구하여 왔다.

한편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행동의 범주를 크게 구매, 사용, 처분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안향아, 1994; 김영희, 1995; 박운아·이기춘, 1995; 민현선·이기춘, 1996; 박운아, 1997).

또한 소비자학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 소비행동의 전 과정에 걸친 분석을 위해 이와 유사한 틀을 이용하고 있는데, 쓰레기 배출과 관련된 행동만을 연구한 이시재 김종해 정영금(1995)은 크게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과 분리수거와 같이 배출단계에서의 감량행동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요인분석을 통해 새롭게 구분하였고, 김영신·신소연(1996)은 환경보전행동을 자원의 소비절약행동, 환경오염방지행동, 자원의 재활용행동의 사용영역만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으며, 변순희(1994)는 쓰레기 처분행동에 초점을 두어 내용을 구성하였다.

특히 환경친화적 행동 중 처분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재활용 행동과 함께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행동에 대해 연구한 안길상 등(1993)은 현가구, 가전제품, 의복 등 재활용 가능 제품을 타인에게 기증하거나 유상처분, 쓰레기 분리배출, 장바구니 사용, 일회용품 사용자제, 우유나 음료수팩을 씻어 말린 후 처분, 폐건전지 별도 수거함에다 버리기 행동

으로 재활용행동과 생활쓰레기 분리배출행동을 구성하고 중요도를 측정하는 각 문항의 가중치에 각 문항점수를 곱하고 이를 모두 합산한 후 응답자의 점수를 3등분하여 적극적 소비자, 소극적 소비자, 무관심·방관자적 소비자로 구분하였다. 적극적 소비자는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행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보전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재 김종해·정영금(1995)은 환경친화적 행동을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과 배출단계에서의 분리수거행동으로 구분하여 두 유형간의 실천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 배출단계에서의 분리수거행동의 실천정도가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에는 오래된 물건을 계속 사용하기, 입지 않는 옷이나 장난감을 물려주기, 과잉포장된 상품 구입 안하기, 시장바구니 사용행동을, 배출단계에서의 분리수거행동에는 폐건전지, 폐지, 빈병, 깡통, 우유팩, 플라스틱용기, 헌옷의 분리수거 행동을 포함시키고 있다. 대부분의 처분행동에 관한 연구들은 생활폐기물의 사후적인 처분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었는데,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사전적인 행동을 고려하여 발생단계에서의 감량행동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비용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매립지 확보에 한계가 있고, 값싸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완전한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고, 처리를 둘러싸고 지역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쓰레기의 분리배출, 분리수거 및 처리를 통한 자원재활용의 극대화는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범주로의 구분을 시도한 몇몇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국내 선행연구 대부분이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을 구매, 사용, 처분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국외 연구들에서는 연구마다 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Jacquelyn(1992)은 환경친화적 상품을 구매할 때

선택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한 결과 설문응답자의 70% 이상이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무공해, 재활용가능, 오존층에 무해함 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Corson(1990)은 미국의 쓰레기 매립장의 황폐로 인한 폐쇄와 공급, 비용에 따른 한계를 설명하면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좋은 제품을 구매,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만이 환경친화적인 처분행동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화와 함께 분리수거, 자원의 재활용 등이 중요한 처분행동임을 밝힘으로써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회적 책임, 환경적 관심이라 하여 공동체 규범의 수용, 지역사회 행사의 참여, 윤리의식의 실행, 법의 준수, 자선행동, 자선기금의 출현, 환경친화적 회사에의 투자 같은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여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Anderson et al., 1972; Webster, 1975; Belch, 1982; Antil, 1984), 무공해 상품의 구매, 재활용 프로그램에의 참여, 에너지 절약과 같은 구체적인 특정 행동(백경미·이기춘, 1987; Kinnear et al., 1974; Murphy, 1978; Roper et al., 1989)을 연구하였으며, 환경문제 중 구체적으로 재활용(recycling) 행동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연구들(Vining & Ebreo, 1990; Hopper & Nielsen, 1991)도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주로 특정 재활용품의 재활용 여부나 재활용 빈도 등을 측정하였다.

한편 Pelletier 등(1996)은 환경친화적 행동의 범주를 재활용(recycling), 보존(conserving), 구매(purchasing)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고, 환경단체에의 참가나 기부금 등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옹호주의(activism)라는 또 다른 범주로 구분하였고, Pelletier 등(1998)의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동기부여가 자기결정에 의한(self-determined) 것인지를 측정하여 개인의 동기부여가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재활용센터

이용이나 특정한 환경상품 구매행동(Turker, 1978, 1980; Young, 1986; Vining & Ebreo, 1990)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직접적인 전략을 수립, 사용한 양을 관찰하는 등의 사용행동(Roper 등, 1989)을 조사하였다. Spence(2000)는 주부들의 재활용 행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높이고, 재활용을 함으로써 금전상의 이익이 있을 때 극대화된다고 연구에서 밝혔으며, 이는 주부들의 재활용 행동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환경친화적 행동의 범주에 구매, 사용, 처분의 소비과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에 가장 심각한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생활폐기물이라는 점을 주목해 볼 때 발생의 감량, 재활용 및 분리배출 등의 환경친화적 처분행동과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한다는 것은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생각에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사용행동 보다는 구매와 처분의 영역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3.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친화적 행동과의 관계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 소비자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인구학적 변수만을 다루어 왔으나 최근 들어 라이프스타일 변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은 환경문제에 관한 소비자행동에도 도입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이용하여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소비자의 특성을 연구한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 Belch(1982)와 Antil(1984)은 라이프스타일 분석이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밝혔으며, 특히 Antil(1984)은 사회책임적 소비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환경문제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사회책임적 소비행동을 측정하고 이를 인구통계적 변인, 라이프스타일 변인, 개성변인 등의 다양한 변인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자들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사회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자유분방하며, 기업 및 정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아 개념(self-concept)이 높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높

은 건강의식을 갖는 것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사회책임적 소비자들의 특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으나, 연령, 가족규모, 성별, 교육, 직업, 소득, 가장의 교육수준, 가장의 직업 등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이영숙(1992)의 연구에 의하면, 폐기물 분리참여도의 결정요인으로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한 결과 절약지향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폐기물 분리참여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강이주(1990)는 소비패턴내에 제품의 처분활동을 포함시켜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제품의 처분방법에 대해 연구한 결과 먼저 라이프스타일은 편의주의형, 근면성실형, 생존유지형, 성취동기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편의주의형은 제품에 대해 영구 처분하는 방법을 택한 반면, 근면성실형과 생존유지형은 제품의 유지를 주로 택했으며 경우에 따라 일시적 처분방법을 택하지만 영구처분은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였다. 성취동기형은 특정한 처분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았는데 이는 성취동기형에 속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품에 따라 다양한 처분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황인창(1990)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통해 우리나라 환경의식적 소비자는 비환경의식적 소비자보다 상대적으로 패션의식이 낮고 텔레비전을 덜 선호하며 자신감이 많고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정서적인 취미활동을 더 선호하며, 가치의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보다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을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정희(1986)도 라이프스타일을 5가지 유형 즉 편의주의형, 근면성실형, 생존유지형, 성취동기형, 미분류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세분집단에 따른 환경오염에 관한 소비자기능과 행동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소비자기능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주형(1994)은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라이프스타일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도입하게 된 이유가 환경의식적 소비자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Antil의 견해에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항목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해 산출된 개인별 요인점수와 사회책임적 소비자행동(SRCB)척도 점수를 회귀분석한 결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인 자신감이 상대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수로 나타나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을 잘 설명해주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생태적 마케팅과 관련된 많은 연구에 있어서도 환경의식적 소비자에 관한 신뢰성있는 설명변수로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생태적 마케팅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기본 전제가 바로 환경의식적 소비행동을 기준으로 하여 소비자를 세분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하정(1993)의 연구에 의하면 주부의 환경오염과 관련된 관리행동에 편의주의의 가치와 물질주의의 가치는 부적 영향을, 생태주의의 가치는 정적 영향을 미쳐 주부의 가치요인이 환경오염과 관련된 주부의 관리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노정구(1995)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환경의식적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조사한 결과, 환경의식적 행동을 하는 녹색소비자와 비녹색소비자는 몇 가지 라이프스타일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녹색소비자는 제품구매시 겉모양보다는 제품내용이나 품질을 보다 중시하며, 즉각적인 욕구충족 여부에는 그다지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는 시간이 많으며, 신문이나 책과 같은 인쇄매체를 보다 선호하고, 가정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 의식이 비교적 남녀평등적이며 또한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영규(1998)는 녹색소비자의 특성과 마케팅전략을 연구한 결과, 라이프스타일과 환경친화적 행동과의 관계에서 녹색소비자가 비녹색소비자에 비해 건강지향적 생활을 하며, 신문이나 TV를 통해 매일 정보를 획득하며, 제품구입시 광고를 통해 정

보를 얻는 편이며,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를 통해 정기적인 쇼핑을 하며, 신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구입하지 않는 편이며, 충동구매 성향이 낮고, 알뜰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녹색소비자가 비녹색소비자에 비해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성을 훨씬 더 느끼고 있었으며,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환경광고의 수용성이나 생활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볼 때 환경친화적 행동에 사회인구학적 변인 외에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기타변인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에 비해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III. 연구문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환경친화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도시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도시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5>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관련 변인),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상대적 기여도는 어떠한가?

## IV. 연구방법

### 1.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작성하여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자기기입식 설문지로 구성하였으며,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배경변인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 환경관련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선정하였다.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가계소득, 주거유형, 가사조력자 유무, 남편의 직업유형, 남편의 교육수준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남편의 직업유형과 교육수준은 주부의 직업유형 및 교육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아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 2) 환경관련변인

##### (1) 환경지식

환경지식은 이승신(1993), 엄하정(1993), 노남숙(1993), 박운아(1997) 등의 연구와 각종 환경관련 정보와 서적들을 참고하여 분리수거요령, 자원절약요령, 환경오염을 줄이는 사용요령 등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각각의 문항에 진위를 판단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정답일 때 1점, 오답이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 0점 처리하여 점수를 합산한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0점부터 9점으로 나타나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지식이 풍부함을 의미한다.

##### (2) 환경교육경험

환경교육경험은 환경교육 강연에 직접 참여한 횟수로 측정하였다. 환경교육 강연에 참여 횟수는 없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으로 구분하고, '없다'의 0점에서 '4회이상'에 4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교육 경험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 (3) 준거집단의 행동

준거집단의 행동은 계선자 변순희(1996), 박운아(199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도시 취업주부가 주변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분리수거와 재활용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지, 자원을 절약하는지 등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이웃 사람들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해 6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준거집단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잘 수행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환경정보수용정도

환경정보는 여러 경로의 정보원을 통하여 어느정도 보고 듣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전혀 보고 듣지 않는다'의 1점에서 '매우 자주 보고 듣는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정보 가 풍부함을 의미한다.

### (5) 환경오염인지도

환경오염인지도는 취업주부가 수질오염, 대기오염, 토양오염 등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다고 느끼는지와 미래의 환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따라 환경보전행동을 실천하는데 적극성 및 지속성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따라서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여 본 연구자가 9문항의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오염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 (6)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

환경행동은 본래의 성격상 분리수거나 재활용 등의 이익이 나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이지만 쓰레기 종량제나 재활용품 보상제 등 최근의 제도들은 처분행동의 이익을 직접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분리수거나 재활용행동을 함으로써 주부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이익을 주며, 주부 소비자 자신이 어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5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

한 보상요구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7) 주변환경시설 수준

환경친화적 지역시설수준은 취업주부가 생활폐기물을 용이하게 분류·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주 지역의 환경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성되어 있는가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지, 음식물 분리수거함 주변은 청결한지, 분류·배출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는지 등을 질문하는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지역시설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라이프스타일

변순희(1994), 계선자·변순희(1996)의 연구를 참고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40문항을 선정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4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후 1요인 5문항, 2요인 5문항, 3요인 5문항, 4요인 6문항의 4개의 요인으로 총 21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각 요인들이 지닌 구성항목의 특성에 의해 명명된 4개의 요인을 이용하여 조사대상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집단(생태지향형, 경제지향형, 편이지향형, 무관심형)으로 분류되었다.

## 4) 환경친화적 행동

환경친화적 행동은 변순희(1994), 민현선(1998)의 연구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환경친화적 행동에 관한 36문항을 선정하여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 방법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통성이 .4이하인 문항을 제외한 후 구매행동 7문항, 처분행동 14문항(재활용행동 6문항, 분리수거행동 5문항, 자원절약행동 3문항)으로 구성하여 총 21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였다. 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정도를 낮추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폐기물의 발생

량을 감소시키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구매하는 등의 문항으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재활용, 분리수거, 자원절약 등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항상 그렇다'의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즉, 환경친화적 구매행동과 처분행동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표 1>과 같다.

##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표 1> 변인별 척도의 신뢰도 계수

변인		문항수	신뢰도 계수 (Cronbach $\alpha$ )
배경 변인	환경지식	9	.60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행동	6	.81
	환경정보수용도	6	.79
	환경오염인지도	9	.76
	환경친화적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	5	.79
라이프 스타일	주변환경시설수준	5	.84
	1요인	5	.91
	2요인	5	.80
	3요인	5	.73
환경 친화적 행동	4요인	6	.72
	구매행동	7	.88
	처분행동	14	.83
전체	21	.90	

본 연구는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집단들을 임의표집(purpose sampling)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서울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은 자기기업식 질문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에 566부를 최종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처리는 SPSS/PC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계수(Cronbach's  $\alpha$ )와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환경친화적 행동의 구성요인 추출을 위하여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둘째,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요인분석을 토대로 조사대상자를 몇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하였다.

셋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라이프스타일 유형, 환경친화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넷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환경친화적 행동,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  $\chi^2$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조사대상자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군, 환경관련 변인군, 라이프스타일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또한 회귀분석시 독립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와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 V. 연구결과 및 분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2>와 같다.

그리고 본 조사대상자의 배경변인 중 환경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은 <표 3>과 같다.

본 조사대상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일반적 경향은 <표 4>와 같다.

본 조사대상자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5>와 같다.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일반적 경향 (N=566)

변 인	구 분	빈 도	%
연령	29세 미만	47	8.3
	30세 이상 - 34세 미만	117	20.7
	35세 이상 - 39세 미만	159	28.1
	40세 이상 - 44세 미만	128	22.6
	45세 이상	115	20.3
교육 수준	고졸 이하	253	44.7
	전문대졸	79	14.0
	대졸	195	34.5
	대학원이상	39	6.9
직업 유형	단순노무·생산직·서비스직	211	37.3
	사무직	158	27.9
	자영상공업	62	11.0
	관리·전문직	135	23.9
월평균 가계 소득	250만원 미만	68	12.0
	350만원 미만	175	30.9
	450만원 미만	148	26.1
	450만원 이상	175	30.9
주거 유형	단독주택	83	14.7
	아파트	356	62.9
	연립 및 다세대	127	22.4
가사 조력자	유 무	177	31.3
		389	68.7

〈표 3〉 환경관련 변인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 균	표준편차
환경지식	5.86	1.57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행동	3.30	.65
환경정보 수용정도	2.84	.66
환경오염인지도	4.58	.49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	4.24	.61
주변환경시설수준	3.35	.90

\* 환경지식변인은 9점 만점

〈표 4〉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일반적 경향

라이프스타일 유형	빈 도	%
생 태 지 향 형	211	37.3
경 제 지 향 형	146	25.8
편 의 지 향 형	103	18.2
무 관 심 형	106	18.7

〈표 5〉 환경친화적 행동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하위영역	평 균	표준편차
환경친화적 행동	구매행동	3.48	.70
	처분행동	3.44	.61
	전 체	3.45	.58

## 2. 도시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도시 취업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6〉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주거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에는 29세 미만은 편의지향형(25.5%)과 무관심형(40.4%)으로, 35세 미만은 라이프스타일의 4개 유형이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45세 이상(45.2%)은 생태지향형과 경제지향형(27.8%)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20대는 편의지향형, 40대는 생태지향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순희(1994), 계선자 변순희(1996), Grangin과 Olson(199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주부의 연령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경제적으로 절약하려는 의지와 계획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려는 생활태도에서 기인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양식이 결국은 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여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교육수준의 경우 고졸이하(45.1%)와 대학원 이상(35.9%)의 학력에서는 생태지향형으로, 전문대졸(31.6%)의 학력에서는 경제지향형으로, 대졸의 학력에서는 경제지향형(24.1%)과 무관심형(24.1%)이 같은 수준으로 분포되었다.

직업유형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생산직(44.1%)과 관리 전문직(39.3%)인 경우 생태지향형으로, 자영직(32.3%)의 경우 경제지향형으로, 사무직(28.5%)의 경우 무관심형으로 나타났다. 즉 사무직보다 생산직, 자영직, 관리 전문직에 종사하는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더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연구한 논문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

배경변인	라이프스타일	구분	생태지향형	경제지향형	편의지향형	무관심형	계	$\chi^2$
			명(%)	명(%)	명(%)	명(%)	명(%)	
사회인구학적변인	연령	29세 미만	11(23.4)	5(10.6)	12(25.5)	19(40.4)	47(100)	df=12 34.09**
		35세 미만	39(33.3)	24(20.5)	26(22.2)	28(23.9)	117(100)	
		40세 미만	60(37.7)	45(28.3)	30(18.9)	24(15.1)	159(100)	
		45세 미만	49(38.3)	40(31.3)	19(14.8)	20(15.6)	128(100)	
		45세 이상	52(45.2)	32(27.8)	16(13.9)	15(13.0)	115(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교육수준	고졸이하	114(45.1)	64(25.3)	40(15.8)	35(13.8)	253(100)	df=9 17.13*
		전문대졸	23(29.1)	25(31.6)	15(19.0)	16(20.3)	79(100)	
		대졸	60(30.8)	47(24.1)	41(21.0)	47(24.1)	195(100)	
		대학원 이상	14(35.9)	10(25.6)	7(17.9)	8(20.5)	39(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직업유형	생산직	93(44.1)	57(27.0)	32(15.2)	29(13.7)	211(100)	df=9 22.11**	
	사무직	47(29.7)	34(21.5)	32(20.3)	45(28.5)	158(100)		
	자영직	18(29.0)	20(32.3)	14(22.6)	10(16.1)	62(100)		
	관리/전문직	53(39.3)	35(25.9)	25(18.5)	22(16.3)	135(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가계소득	250만원 미만	31(45.6)	11(16.2)	17(25.0)	9(13.2)	68(100)	df=9 16.28	
	350만원 미만	75(42.9)	39(22.3)	29(16.6)	32(18.3)	175(100)		
	450만원 미만	49(33.1)	38(25.7)	30(20.3)	31(20.9)	148(100)		
	450만원 이상	56(32.0)	58(33.1)	27(15.4)	34(19.4)	175(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주거유형	단독주택	35(42.2)	22(26.5)	11(13.3)	15(18.1)	83(100)	df=6 15.70**	
	아파트	122(34.3)	107(30.1)	65(18.3)	62(17.4)	356(100)		
	연립/다세대	54(32.5)	17(13.4)	27(21.3)	29(32.8)	127(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가사조력자	유	61(34.5)	42(23.7)	38(21.5)	36(20.3)	177(100)	df=3 2.85	
	무	150(38.6)	104(26.7)	65(16.7)	70(18.0)	389(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p&lt;.05 \*\*p&lt;.01 \*\*\*p&lt;.001

(이정국, 1993; 이유정, 1995; 박성미, 1997; 박상미, 1999)들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거유형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단독주택(42.2%) 및 아파트(34.3%)에 거주하는 경우 생태지향형으로, 연립·다세대(32.8%)에 거주하는 경우 무관심형으로 나타났다. 즉 연립 다세대에 거주하는 주부보다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생태지향형으로 나타난 변순희(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2) 환경관련 변인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관련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의 차이는 〈표 7〉과 같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환경교육경험 유무, 준거집단의 행동, 환경정보수용정도, 환경오염인지도, 주변환경시설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교육경험 유무의 경우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환경교육경험이 있는 경우 생태지향형(29.8%)과 경제지향형(42.7%)이 편의지향형(12.1%)과 무관심형(15.3%)보다 높게 분포된 반

〈표 7〉 환경관련 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

배경변인	라이프스타일	구분	생태지향형	경제지향형	편의지향형	무관심형	계	$\chi^2$
			명(%)	명(%)	명(%)	명(%)	명(%)	
환경 관련 변인	환경 지식	상집단	72(36.4)	59(29.8)	30(15.2)	37(18.7)	198(100)	df=6 5.06
		중집단	105(38.0)	66(23.9)	57(20.7)	48(17.4)	276(100)	
		하집단	34(37.0)	21(22.8)	16(17.4)	21(22.8)	92(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환경교육 경험	유	37(29.8)	53(42.7)	15(12.1)	19(15.3)	124(100)	df=3 24.27***
		무	174(39.4)	93(21.0)	88(19.9)	87(19.7)	442(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준거 집단 행동	상집단	73(37.8)	79(40.9)	23(11.9)	18 (9.3)	193(100)	df=6 52.58***
		중집단	89(38.4)	47(20.3)	41(17.7)	55(23.7)	232(100)	
		하집단	49(34.8)	20(14.2)	30(27.7)	33(23.4)	141(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환경 정보 수용	상집단	57(39.0)	61(41.8)	14 (9.6)	14 (9.6)	146(100)	df=6 55.02***
		중집단	108(40.1)	64(23.8)	43(16.0)	54(20.1)	269(100)	
		하집단	46(30.5)	21(13.9)	46(30.5)	38(25.2)	151(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환경 오염 인지	상집단	87(39.0)	66(29.6)	40(17.9)	30(13.5)	223(100)	df=6 16.95**	
	중집단	74(37.8)	48(24.5)	41(20.9)	33(16.8)	196(100)		
	하집단	50(34.0)	32(21.8)	22(15.0)	43(29.3)	147(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보상 요구도	상집단	58(36.9)	41(26.1)	33(21.0)	25(15.9)	157(100)	df=6 7.34	
	중집단	95(37.4)	70(27.6)	47(18.5)	42(16.5)	254(100)		
	하집단	58(37.4)	35(22.6)	23(14.8)	39(25.2)	155(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주변 환경 시설	상	65(41.1)	57(36.1)	20(12.7)	16(10.1)	158(100)	df=6 51.84***	
	중	94(36.7)	75(29.3)	38(14.8)	49(19.1)	256(100)		
	하	52(34.2)	14 (9.2)	45(29.6)	41(27.0)	152(100)		
	계	211(37.3)	146(25.8)	103(18.2)	106(18.7)	566(100)		

\*p<.05 \*\*p<.01 \*\*\*p<.001

면, 환경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생태지향형(39.4%)보다 편의지향형(19.9%)과 무관심형(19.7%)이 좀 더 높게 분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경험이 풍부할수록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적극활동형으로 나타난 변순희 (1994), 계선자 변순희(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전통적 라이프스타일을 지니고 있는 주부보다 적극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지닌 주부가 자아정체성이 높고 자기를 개발하려는 의지도 강하며,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 사회참여율이 높다고 밝힌 Stahnke(2001)의 연구결과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경향이다.

준거집단의 행동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준거집단의 행동 수준이 높은 경우 경제지향형(40.9%)으로, 중간정도인 경우 생태지향형(38.4%)으로, 낮은 경우 편의지향형(27.7%)과 무관심형(23.4%)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보편적인 의식으로 남의 이목을 중시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따라하려는 가치관에서 비롯되었다는 박문아(1997), Oskamp 등(1991), Stahnke(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환경정보수용정도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환경정보수용정도가 높은 경우 경제지향형(41.8%)으로, 중간정도인 경우 생태지향형(40.1%)으로, 낮은 경우 편의지향형(30.5%)과 무관심형(25.2%)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정보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주부가 그렇지 않은 주부보다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적극활동형에 가깝다는 이정국(1993), 노영아(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환경부(2002)의 자료에서도 소비자들에게 환경정보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많이 접하게 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환을 돕고 있다.

환경오염인지도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환경오염인지도가 높거나 중간정도인 경우 각각 생태지향형(39.0%), (37.8%)으로, 환경오염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도 생태지향형(34.0%)과 무관심형(29.3%)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적극활동형에 속하며, 환경오염에 대해 무관심할수록 편리추구형에 속한다고 밝힌 이유정(1995), 박성미(1997), 박상미(1999)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변환경시설 수준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주변환경시설 수준이 높은 경우 생태지향형(41.1%)과 경제지향형(36.1%)으로, 낮은 경우 생태지향형(34.2%)보다 편의지향형(29.6%)과 무관심형(27.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변순희(1994)와 박운아(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취업주부가 거주하는 지역의 일반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함이 잘 갖추어져 있고, 환경상품을 구매하기 쉽고, 반상회사 부너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고, 모아놓은 재활용품을 잘 수거해 갈 때,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생태지향형, 경제지향형으로 나타났으므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환을 돕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 시설 등의 주변환경시설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3. 도시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 1) 사회인구학적 변인

도시 취업주부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령( $p<.01$ ), 교육수준( $p<.001$ ), 직업유형( $p<.001$ ), 가계소득 ( $p<.05$ )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40세 이상의 높은 집단이 29세 미만-35세 미만의 낮은 집단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환경친화적 행동의 연구에서 연령은 특히 다양한 경향을 나타내는 변인으로서 Grangin과 Olson(1991)은 젊은층보다는 노년층에서 환경보전행동 수준이 높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안길상 등(1993), 변순희(1994), 안향아(1994)의 연구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또한 Vining과 Ebreo(1990)도 연령이 높을수록 재활용행동에 적극적이라고 하였고, 민현선(1998)도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잘 수행한다고 하였다.

한편,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인 연구들(홍기남, 1992; 박운아, 1995; Van Liere & Dunlap, 1980; Oskamp 등, 1991)도 있으며, 특히 Scott와 Willits(1994)는 연령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령과 환경친화적 행동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노남숙, 1993; 엄하정, 1993; 최남숙, 1994)도 다수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다양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연령은 환경친화적 행동의 하위영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정적 혹은 부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교육수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교육수준이 전문대졸과 대졸보다 고졸이하와 대학원 이상일 때 구매행동과 처분행동을 보다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배경변인	환경친화적행동	구 분	빈 도	구매행동		처분행동		전 체	
				M	D	M	D	M	D
사회인구 학적변인	연령	29세 미만	47	3.02	A	3.05	A	3.04	A
		35세 미만	117	3.27	B	3.25	B	3.26	B
		40세 미만	159	3.55	C	3.49	C	3.53	C
		45세 미만	128	3.58	C	3.56	C	3.56	C
		45세 이상	115	3.63	C	3.57	C	3.59	C
	F값			F=10.98***		F=11.39***		F=13.73**	
	교육 수준	고졸이하	253	3.59	B	3.56	B	3.57	B
		전문대졸	79	3.46	AB	3.43	AB	3.44	AB
		대졸	195	3.32	A	3.28	A	3.29	A
		대학원 이상	39	3.58	B	3.49	B	3.52	B
	F값			F=5.98**		F=7.94***		F=8.78***	
	직업 유형	생산직	211	3.64	C	3.57	B	3.26	A
		사무직	158	3.28	A	3.25	A	3.59	C
		자영직	62	3.57	BC	3.53	B	3.54	BC
		관리/전문직	135	3.42	AB	3.41	B	3.42	B
	F값			F=9.08***		F=9.06***		F=11.09***	
가계 소득	250만원 미만	68	3.50		3.56	B	3.54	B	
	350만원 미만	175	3.51		3.45	AB	3.47	AB	
	450만원 미만	148	3.37		3.31	A	3.33	A	
	450만원 이상	175	3.53		3.49	B	3.50	B	
F값			F=1.63		F=3.55*		F=3.24*		
주거 유형	단독주택	83	3.57		3.47		3.50		
	아파트	356	3.47		3.46		3.47		
	연립/다세대	127	3.44		3.35		3.38		
F값			F=.99		F=1.68		F=1.38		
가사 조력자	유	177	3.41		3.38		3.39		
	무	389	3.51		3.46		3.48		
t값			t=-1.60		t=-1.47		t=-1.67		

\*p<.05 \*\*p<.01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학력과 저학력일 때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나 복합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서정희, 1991; 홍기남, 1992; 박운아, 1997; Schahn & Holzer, 1990)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환경친화적으로 행동한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또한 저학력일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에 적극적이라고 밝힌 노영화 강성진(199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직업유형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 행동

(p<.001), 처분행동(p<.001))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무직과 관리·전문직보다 단순노무·생산·서비스직과 자영직에 종사하는 주부가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관리·전문직에 종사할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와 자영업인 경우에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노남숙(199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가계소득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처분행동

( $p<.05$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이 중상(450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하(250만원 미만)와 상(45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을 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서정희, 1991; 홍기남, 1992; 이승신 등, 1993; 오연옥 등, 1995, Vining & Ebreo, 1990)와 소득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다는 연구(변순희, 1994, 박운아·이기춘, 1995; 계선자·변순희, 1996; 민현선·이기춘, 1996)결과와 일치한다.

2) 환경관련 변인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의 차이 검증 결과는 <표 9>와 같다. 환경변인 중 환경교육경험 유무( $p<.001$ ), 준거집단의 행동( $p<.001$ ), 환경정보수용정도( $p<.001$ ), 환경오염인지도( $p<.001$ ), 보상요구도( $p<.001$ ), 주변환경시설수준( $p<.001$ )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환경교육경험 유무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1$ ), 처분행동( $p<.001$ ))

<표 9> 환경관련 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배경변인	환경친화적행동	구 분	빈 도	구매행동		처분행동		전 체	
				M	D	M	D	M	D
환경관련 변인	환경 지식	상집단	276	3.39		3.45	B	3.48	B
		중집단	198	3.46		3.47	B	3.47	B
		하집단	92	3.54		3.31	A	3.34	A
	F값			F=1.59		F=2.51		F=2.22	
	환경교육 경험	유	124	3.66		3.63		3.64	
		무	442	3.43		3.39		3.40	
	F값 및 유의도			t=3.27**		t=3.93***		t=4.07***	
	준거집단 행동	상집단	193	3.27	A	3.97	A	3.30	A
		중집단	232	3.38	A	3.76	B	3.04	B
		하집단	141	3.74	B	3.72	C	3.27	C
	F값			F=23.78***		F=48.60***		F=46.80***	
	환경정보 수용	상집단	146	3.77	C	3.66	C	3.70	C
		중집단	269	3.47	B	3.49	B	3.48	B
		하집단	151	3.21	A	3.14	A	3.16	A
	F값			F=26.44***		F=32.11***		F=36.48***	
환경오염 인지	상집단	223	3.63	C	3.52	B	3.56	B	
	중집단	196	3.45	B	3.45	B	3.45	B	
	하집단	147	3.28	A	3.29	A	3.29	A	
F값			F=11.47***		F=5.85**		F=9.17***		
보상 요구도	상집단	157	3.55	B	3.42	B	3.46	B	
	중집단	254	3.52	B	3.55	B	3.54	B	
	하집단	155	3.34	A	3.28	A	3.30	A	
F값			F=4.39*		F=10.07***		F=8.67***		
주변환경 시설수준	상	158	3.69	C	3.61	C	3.64	C	
	중	256	3.48	B	3.49	B	3.48	B	
	하	152	3.26	A	3.18	A	3.21	A	
F값			F=15.07***		F=22.62***		F=23.80**		

\* $p<.05$  \*\* $p<.01$  \*\*\* $p<.0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환경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교육경험이 있거나 교육경험의 빈도가 많을수록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더 잘 실천한다고 한 이승신 등(1993), 최남숙(1994), 박운아·이기춘(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준거집단의 행동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과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구매행동에서는 준거집단의 행동이 하집단(3.74점)에서 중, 상(3.38점, 3.27점)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상품의 가격이 저렴하지 않다는 것과 판매장소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처분행동에서는 상집단(3.97점)이 중, 하(3.76점, 3.72점)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준거집단의 행동은 환경친화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영숙, 1992; 변순희, 1994; 박운아, 1997; Neuman, 1989; Oskamp 등, 1991; Guagnano 등, 199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환경정보수용정도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환경정보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상집단이 중, 하집단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매체접촉 빈도가 많을수록, 환경기사나 보도에 관심이 많을수록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한다는 현금희(1990), 노재영(1991), 홍기남(1992), 엄하정(1993), 노남숙(1993), 이승신 등(1993), 안길상 등(1993), 안향아(1994), 한국여성개발원(1993), 오연옥 등(1995), 박상미(1999)의 연구결과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한 소비자일수록 높은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을 보인다는 Vining과 Ebreo(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소비자가 접하게 되는 매체들 중에서 TV, 신문, 홍보물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촉진시키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한 Geller 등(1982)과 Goldman 등(1983)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다.

환경오염인지도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 처분행동( $p<.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구매행동의 경우에는 환경오염인지도가

높은 상집단이 중집단보다, 중집단은 하집단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환경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지할수록 환경상품을 구매한다는 결과이며, 처분행동의 경우에는 상집단과 중집단이 하집단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공해가 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일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에 적극적이라고 보고한 Cutter(1981)와 인간이 공해나 수질오염에서 느끼는 건강과 안녕에 대한 위협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예측하는 주요변인이 된다고 밝힌 Bladassare와 Katz(19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보상요구도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5$ ),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보상요구도가 큰 상집단과 중집단이 낮은 하집단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동기가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Oskamp 등(1991)의 연구에서 금전적 보상의 적음과 지연이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낮은 결과라고 보고 한 것과 노영화·강성진(1992)은 주부들이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협조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적 이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힌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주변환경시설수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구매행동( $p<.001$ ), 처분행동( $p<.001$ ))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주변환경시설수준이 하보다 중이, 중보다 상인 경우에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리수거함이 세분화되어 있을수록, 재활용센터 이용이 편리하며, 환경상품 구매가 쉬운 경우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난 연구(변순희, 1994; 이무영, 1994; 계선자·변순희, 1996; 박운아, 1997) 결과와 일치한다.

#### 4.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과 하위영역의 구매행동 및 처분행동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환경친화적 행동의 경우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

〈표 10〉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

환경친화적행동 라이프스타일	빈도	구매행동		처분행동		전체	
		M	D	M	D	M	D
생태지향형	211	3.69	C	3.55	C	3.60	C
경제지향형	146	3.83	C	3.72	D	3.76	D
편의지향형	103	3.17	B	3.25	B	3.22	B
무관심형	106	2.86	A	3.01	A	2.96	A
F값		F = 75.64***		F = 40.06***		F = 65.77***	

\* $p < .05$  \*\* $p < .01$  \*\*\* $p < .001$ 

D : Duncan's Multiple Ranges Test

일 유형 중 경제지향형이 3.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태지향형 3.60점, 편의지향형 3.22점, 무관심형 2.9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경제지향형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는 변순희(1994), 계선자 변순희(1996), 노영아(199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며,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소비지향형에서 절약을 추구하는 경제지향형으로 전환된다고 밝힌 이정국(1993)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취업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이 현대적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생활 전반에 있어서 절약하려고 노력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며 또한 IMF 사태의 영향으로 경제우선 마인드의 합리적 사고(삼성경제연구소, 1998)가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다.

하위영역별로 살펴 볼 때, 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은 경제지향형(3.83점), 생태지향형(3.69점), 편의지향형(3.17점), 무관심형(2.86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환경친화적 일수록 환경관련상품을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구매행동을 많이 한다고 보고한 변순희(1994)의 연구와 일치한다.

환경친화적 처분행동은 경제지향형(3.72점), 생태지향형(3.55점), 편의지향형(3.25점), 무관심형(3.01점)의 순으로 나타나 구매행동보다 처분행동에 더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환경친화적 일수록 절약하려는 성향이 강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나타나서 환경친화

적 처분행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노영아(199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편의지향형은 환경친화적 구매행동 및 처분행동의 수행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이 편의지향형 일 때 환경상품 구매를 덜하며 재활용과 분리수거 및 자원절약 행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지구환경보고서(2002)에서는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인센티브제도, 동료들의 행동, 직접적인 호소, 효과적인 의사소통 등에 사람들은 반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영향요소들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하는데 제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여 보다 적극적인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축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무관심형은 환경친화적 구매행동 및 처분행동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적극적이지 못하므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있어서도 가장 낮은 행동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노영아(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 5.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도시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배경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군, 환경관련 변인군), 라이프스타일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를 비교하기 위하여 각 독립변인군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시 1단계에서는 배경변인 중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대상으로 하였고 다음 2단계에서는 환경관련 변인을 추가로 분석하였으며, 마지막 3단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표 11).

각 단계별 설명력을 살펴보면 처음 1단계에서 사

회인구학적 변인군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 결과 설명력이 11%( $p<.001$ )로 나타났으며 2단계에서 환경관련 변인군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31%( $p<.001$ )로 1단계에 비해 20%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 마지막 3단계에서 라이프스타일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설명력이 41%( $p<.001$ )로 10%의 설명력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결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연

<표 11>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제 변인군의 상대적 기여도

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b	$\beta$	b	$\beta$	b	$\beta$	
사회 인구학적 변인	연령	1.46	.18***	1.32	.17	5.32	.07*	
	교육수준	-2.70	-.09	-1.38	-.05	3.20	.01	
	직업유형	생산직	.22	.18***	.16	.13**	-2.57	-.00
		자영직	.16	.09	.12	.06	-4.18	-.02
		관리/전문직	.10	.08	3.37	.03	-7.74	-.06
	가계소득	2.05	.05	5.58	.01	8.90	.02	
	주거유형	단독주택	7.79	.05	1.91	.01	-6.60	-.04
		아파트	.13	.11*	-7.09	.06	-8.56	-.07
가사조력자	-1.45	-.01	-2.07	-.02	-9.28	-.01		
환경변인	환경지식			-4.89	-.01	-2.22	-.00	
	환경교육경험			2.75	.02	6.06	.04	
	준거집단의 행동			.22	.25***	.11	.13***	
	환경오염인지도			.19	.22***	6.16	.07*	
	환경정보수용정도			.12	.09*	4.60	.03	
	보상요구도			.12	.13**	6.93	.07*	
	주변환경시설수준			.11	.06*	3.78	.06	
라이프 스타일 유형	생태지향형					.47	.39***	
	경제지향형					.56	.42***	
	편의지향형					.24	.16***	
상수		2.98		.66		.91		
R <sup>2</sup>		.11		.31		.41		
R <sup>2</sup> 증가량				.20***		.10***		
F값		7.25***		15.11***		31.80***		

직업유형 기준: 사무직  
 주거유형 기준: 연립 다세대  
 가사조력자 기준: 무  
 환경교육경험 기준: 무  
 라이프스타일유형 기준: 무관심형

\* $p<.05$  \*\* $p<.01$  \*\*\* $p<.001$

령( $\beta=.18$ ), 직업유형 중 단순노무·생산직( $\beta=.18$ ), 주거유형 중 아파트( $\beta=.11$ ) 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직업이 사무직보다 단순노무·생산직인 경우, 주거유형이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 2단계에서 환경관련 변인을 추가한 결과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 $\beta=.25$ ), 환경오염인지도( $\beta=.22$ ),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 $\beta=.13$ ), 환경정보수용정도( $\beta=.09$ ), 주변환경시설수준( $\beta=.06$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의 경우 준거집단의 영향이 클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박성미(1997), 박상미(199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환경오염인지도의 경우, 환경오염인지도가 높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엄하정(1993)의 연구와 일치한다.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는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박성미(1997), Oskamp 등(1991)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환경변인 중 환경정보수용정도 역시 환경친화적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변순희(1994), 민현선(1998)의 연구와 일맥상통한다.

환경변인 중 주변환경시설수준도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지역시설수준이 잘 갖추어져 있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추가한 결과 경제지향형( $\beta=.42$ ), 생태지향형( $\beta=.39$ ), 편의지향형( $\beta=.16$ )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경제지향형, 생태지향형, 편의지향형 일때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경제지향형, 생태지향형이 높을수록, 편의지향형

이 낮을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로서, 노영아(1996), 한상철(1998), 최남숙 이소영(200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환경관련 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한 2단계와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추가하여 분석한 3단계에서 설명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취업주부의 연령, 직업유형, 주거유형과 같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도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취업주부의 준거집단의 행동, 환경오염인지도, 보상요구도, 주변환경시설수준 등의 환경관련 변인과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환경친화적 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와 같이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환경관련 변인 및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사회인구학적 변인보다 상대적 기여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는 서정희(1991), 이정국(1993), 변순희(1994), 이주형(1994), 이유태(1995), 노영아(1996), 계선자 변순희(1996), 한상철(1998), Plummer(1974), Belch(1982), Antil(1984), Wells 등(199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다시 말해 환경친화적 행동 연구시 라이프스타일 변인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 VI.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환경관련 변인 중 환경오염인지도의 평균 점수가 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산업사회의 기술문명이 자연환경의 많은 부분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생산기술과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이 때문에 환경파괴의 규모가 점차 확대, 심화되고 지역적·국가적 문제에서 전 지구의 문제로 발전되었다는 점과 1990년대를 세계재해 감소를 위한 10년으

로 UN이 정했으나 실제로는 1990년대에 대량의 홍수, 폭풍우, 지진, 화재 등의 희생이 가장 많았다 사실(환경부, 2002) 및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엄청난 양과 편의성 위주의 생활에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관련 부서 및 학교, 비공식적 기관 등을 통해서 환경위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와 사례를 보도하여 소비자들에게 환경오염의 심각한 수준을 인식하게 함으로서 환경친화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생태지향형 37.3%, 경제지향형 25.8%, 편의지향형 18.2%, 무관심형 18.7%로 나타났다. 취업주부들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생태지향형과 경제지향형에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음을 볼 때, 취업주부들에게 직접적인 호소와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비닐봉지 보상제, 리필제품의 저렴한 등의 실제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분리수거, 재활용, 자원절약을 실천하는 생활양식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주거유형, 환경교육경험 유무, 준거집단의 행동, 환경정보수용정도, 환경오염인지도, 주변환경시설수준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취업주부의 배경변인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을 살펴 본 결과 전체적으로 배경변인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유형, 가계소득, 환경교육경험 유무, 준거집단의 행동, 환경정보수용정도, 환경오염인지도, 보상요구도, 주변환경시설 수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행동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환경친화적 행동에 대한 보상요구도,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분리수거함 등의 주변환경시설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이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단체는 경제적 동기에 근거한 환경정책을 확대하여 취업주

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인하는 방안과 자신의 생활이 다소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미래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개인의 감정에 호소하는 방안 등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환경친화적 행동을 생활화하는데 효과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제반 시설을 확충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재정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을 살펴 본 결과 라이프스타일 유형 중 경제지향형과 생태지향형일수록 환경친화적 행동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편의지향형과 무관심형일수록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여섯째,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직업유형과 주거유형도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유형은 사무직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생산직 종사자가 대체로 저소득층이므로 환경친화적 처분행동 수행시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재활용과 자원절약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리·전문직 종사자는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도 관심이 많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가장 낮은 직업유형은 사무직으로 나타남으로서, 사무직 종사자에게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환경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주거유형 중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파트가 분리수거함 등의 제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 외에도 환경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단독주택의 경우 분리수거시설의 부족과 부재, 재활용품의 수거처리가 관할 구청에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맞추어 진행되므로 이에 따른 불편함 등이 원인이 되므로 단독주택 및 연립·다세대에 거주하는 취업주부들의 환경친화적 행동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제도 및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주변환경시설의 확충, 쓰레기 수거체계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환경친화적 행동간의 관계를 파악해 봄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환경교육 및 정책수립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에 따른 환경친화적 행동은 관련이 있음이 입증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환경친화적 행동 수행시 불편함과 번거로움과 같은 제반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직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도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모든 주부에게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배경변인의 일반적 경향에서 직업유형에 따라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환경친화적 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연구문제 분석에서 직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다루지 못하였으므로 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에서 직업유형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환경지식 변인을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소비자의 실천사항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하였으나 취업주부의 환경지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지식 중 변경된 사항에 대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하여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므로 환경지식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식이나 정보 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교육은 학교교육과 사회교육 뿐만 아니라 개별가계에서 부모의 행동을 자녀가 그대로 모방하므로 부모를 교육할 수 있는 평생교육 등의 차원에서

부모교육이 이루어져 가정에서 환경교육의 효율화를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준거집단의 환경친화적 행동은 취업주부의 라이프스타일 유형 및 환경친화적 행동에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확인 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환경친화적 행동의 수준이 높은 지역이나 그 지역의 인물을 소개하는 등의 사례를 포함시켜 보다 적극적인 행동으로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 양적 연구 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가 함께 진행되어 환경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 환경변인 중 환경친화적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한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난바, 재활용과 자원절약 행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제적인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취업주부의 환경친화적 행동에 라이프스타일 변인의 중요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정부, 기업, 개별가계는 라이프스타일을 환경친화적인 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유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환경을 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고 훼손시키는 기업체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정책에 있어서도 경제적 동기와 사회적 책임감을 유발하는 개인적 호소에 근거한 정책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환경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으로서 제품의 내구성과 수명이 긴 제품의 생산에 주력해야 할 것이며, 환경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함과 함께 정보의 신뢰성에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환경상품의 구매가 용이하도록 시장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끝으로 개별가계는 부모의 가치관과 행동을 자녀가 그대로 모방하므로 부모가 먼저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하는 모델이 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를 위해서는 환경친화적인 라이프스타일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경친화적인 행동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초가 되므로 현재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책임있는 소비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계선자(1997). 아동기 소비자의 환경보존의식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2), 1-17.
- \_\_\_\_\_ (1999). 신세대 소비자의 역할수행 및 녹색소비행동.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1), 1-15.
- \_\_\_\_\_ 변순희(1996). 어머니의 소비자의식과 자녀의 환경보전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생활과학연구지*, 25-40.
- 김영신, 신소연(1996). 청소년소비자의 환경보전능력에 관한 인과적 분석. *소비자문제연구*, 18, 93-120.
- 노동부(2001).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노정구(1996). 환경의식적 소비행동과 라이프스타일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마케팅관리연구*, 2(1), 1-18.
- 문상길(1993). *그린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민현선, 이기춘(1996).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과 환경규제 방안에 대한 지지도. *대한가정학회지*, 34(3), 107-121.
- 박병윤(2000).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지역경제정책*. 계명대 박사학위논문.
- 박운아, 이기춘(1995). 환경의식적 소비자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4), 199-212.
- 박운아(1997). *기혼여성의 환경친화적 소비자행동*.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박정희(2002). 가정의 환경테크 전략의 변화와 적용.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6차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35-51.
- 변순희(1994). 주부의 환경보전의식 및 행동에 따른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도.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 서정희(1997). 환경문제에 책임을 지는 소비자처분행동 및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1), 27-40.
- 손영석(1991). 소비자지각에 대한 준거집단의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 박사학위논문*.
- 심미영(1999).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책임적 소비자태도와 행동의 일치성 및 영향요인. *대구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 안길상, 정영숙, 이기주, 이동섭(1993).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적인 소비자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환경문제와 소비자*, 55-72.
- 이명식(1992).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체계적 고찰과 확장된 이론적 틀. *마케팅연구*, 7(1), 51-61.
- 이주형(1994). 라이프스타일 조사를 통한 환경의식적 소비자의 특성 분석. *마케팅논집*, 3(2), 97-113.
- 최영규(1998). *녹색소비자의 특성과 마케팅전략에 관한 연구*. 청주대 박사학위논문.
- Allen, M. E (2001). *Cleansing the City : Geographies of Filth and Purity in Victorian London*. University of Virginia. Ph. D.
- Arcury, T. A. & Christianson, E. H (1990). *Environmental Worldview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Problems : Kentucky 1984 and 1988 Compared*. *Environment and Behavior*, 22, 387-407.
- Birch, A. D. (2000). Exploring the feasibility of reusable container and bulk product dispenser system in supermarkets. *Dalhousie University(Canada)*. Ph. D.
- Corral-Verdugo, V. (1996). A Structural Model of Reuse and Recycling in Mexico. *Environment and Behavior*, 28(5), 665-596.
- De Young, R. (1988-1989). Exploring the Difference between Recyclers and Non-recyclers : The Role of Inform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Systems*, 18(4), 341-351.
- \_\_\_\_\_ (1990). Recycling as Appropriate Behavior : A Review of Survey Data from Selected Recycling Education Programs in Michigan. *Resources. Conservation Recycling*, 3, 253-266.
- Elnick, A. B. (2000). Influence of environmental

- reasoning and motivation on environmental behavior among adults. Wayne State University. Ph. D.
- Granzin, K. L. & Olson, J. E.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in Conservation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An Emphasis on Helping Behavior. in Mary C. Gilly et al.(eds). AMA Educators' Proceeding : Chicago. IL : American Marketing Association, 177-186.
- Gangland, G. A., Stern. P. C. & Dietz. T. (1995). Influences on Attitude Behavior Relationships - A Natural Experiment with Curbside Recycling. *Environment and Behavior*, 27(5), 699-718.
- Oskamp, S., Harrington, M. J., Edward, T. C., Sherwood, D. L., Okuda, S. M. & Swanson, D. C. (1991). Factors influencing Household Recycling Behavior. *Environmental and Behavior*, 23(4), 494-519.
- Pelletier, L. G., Legault, L. R. & Tuson, K. M. (1996). The Environmental Satisfaction Scale - A measure of on with Local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Government Environmental Policies. *Environmental and Behavior*, 28(1), 5-26.
- Schwartz, E. M. (2001). A simple approach to solid waste planning for urbanizing counties. University of Missouri. M. S.
- Solheim, C. A. & Hill, P. P. (1994). Home Economists as Environmentalists. *Journal of Home Economics*, 20-29.
- Spence, A. A. (2000). Explaining recycling : A social norms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h. D.

(2004년 1월 20일 접수, 2004년 6월 24일 채택)